

◇월주스님 ◇월탄스님 ◇설조스님 ◇지선스님 ◇지은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 표발같이 행보 '신중'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스님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후보로 떠 오른 스님들은 현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스님, 전불국사주지 설조스님, 백양사주지 지선스님, 전통도사주지 지은스님등.

월주스님은 현직 총무원이라는 입장에서 공식적인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출마가 확실하다는 것이 종단 주변의 관측. 스님은 후보등록 직전에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16일 정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마련해 출마의사를 공표한 설조스님은 △종단 법정의 확립 △교구본사의 기능강화, 총무원 기구 축소 △교육 포교역량의 전문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설조스님은 "현 총무

월주-월탄-설조-지선-지은스님 '파전'

원장의 3선 저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3선이 저지되면 나머지 후보들과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도 밝혀 다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월탄스님도 16일 오후4시 아시아불교평화회의 몽골리아 총회 참석 보고회를 위한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스님의 출마는 거의 확실하다. 회견에서 스님은 "종단의 교육개혁을 통해 모든 승려가 사회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기의 불교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교육개혁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비쳤기 때문. 무엇보다 스님은 "원로스님들과 선후배스님들이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미 두번이나 낙선을 경험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선 뒤에 움직일 생각"이라 말해 상당한 신중성을 보였다.

출마선언은 유보하고 있지만 지선스님의 출마도 확실하다. 스님은 2일 기자회견의 사석에서 △종단 개혁과 화합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제고 △새로운 선거제도 조성 등을 위해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18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님은 "지난 4년은 원로회의와 중앙종회 본사주지의 역할 등이 총체적으로 무력화되면서 개혁이 실종된 시기였다"며 "원장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종된 종단개혁의 의지를 되살리기 위해 선거전에 뛰

어 들겠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94년 종단 개혁의 현장에서 뛰었던 지선스님은 종단개혁불사의 중단없는 추진을 최대의 모토로 걸고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스님은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위해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종단을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 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은스님은 아직 서울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문건을 통해 '출마의 변'을 언론사로 보내고 있으나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선언을 하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스님은 △종단위상 고양 △면학풍토 쇄신 △총무원정 개선 △인재 불사를 통한 포교 활성화 등의 정책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선거구도와 관련 자칫 과열 선거분위기가 조성돼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불교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임연태 기자(ytlm@buddhopia.com)

승가대 학인·동문-종회의원 성명 공방전...갈등 심화

승가대 학인스님 총무원 농성 파장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9일부터 12일까지 총무원 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학생회와 동문회 중앙종회의원들의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는 12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우스님을 비롯한 종단 부장스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혁종단의 위상을 손상시킨 승려에 대한 총무원의 철저한 조사 징계 △김도학사 이전불사 완공과 관련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한 총무원과 중앙승가대간의 공동조사위 구성△김도학사 이전불사 완공을 위한 10% 예산 증액지원 종회포교 노력△학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업에 정진한다 등의 4개항을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법등, 영담, 지홍, 명진, 법성스님등 종회의원 스님들은 15일 농성을 주도한 승가대 학생과 임의로 합의를 작성해 준 총무부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적법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중앙승가대 학생회와 동문회는 16일 반박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17일 열린 중앙종회에서 '중앙승가대 학 사태 보고의 건'이 상정됐다. 총무원장 월주스님까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질의에서 일부 의원스님들은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합의서의 내용이 너무 관이하다"며 "이면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무효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총무원장 원우 스님은 "이면계약은 없었다" "합의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화 될 것이다"고 답했다. "학인들의 총무원 점거 농성은 승려법에 의해 조치 될 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호법부장 영배스님은 "의법조치 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불은사주지 선임과 관련해서도 "인사권자인 총무원장이 임명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으며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불은사주지와 중앙승가대 동문회측이 각각 후보를 추천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답했다.

임연태·이은자 기자 (eljee@buddhopia.com)

고은씨와 박완일씨는 젊은날 효봉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한 사형사제다.

열마흔 두번이 서울 법원사에서 만났다.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두사람은 하산하여 각기 다른분야에서 일가를 이뤄 명사가 되었지만 효봉스님의 법취를 지니고 있었다. 파를 나눈 형제들이 닮았듯 그것은 법형제로서의 공통점이었다. 한 스승을 모시고 피대신 법을 나눴으니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박완일씨는 가끔 현 더불교신문사로 전화 하여 고은 논설고문이나

언제 나오시는지 묻는다. 이유는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서이다. 그 情은 동기간의 우애 못지않은 법형제의 우애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정이 확정되면서 금오문중 그러니까 속칭 '월자(月字) 문중'의 3형제 스님 출마설이 승승강대에 화제다. 그 주인공은 월주, 월탄, 설조(월태)스님이다.

세 스님중 막내인 설조스님은 16일 출마선언을 했다. 같은날 월탄스님은 여론을 수렴후 결정할 뜻을 보였다.

큰 형님으로 현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은 후보등록때까지 출마결정을 발표할 것을 교계는 짐치고 있다. 덕숭문중의 대들보로 불리운 스승 금오스님이 오늘의 세 형제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하일까. 속가에서도 보기도된 일이다. 형제끼리의 경합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며 서로 권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일때 더 승가다운 것 같다.

음력 8월17일(10월7일)은 금오스님 추모 기일이다. 문도들이 모여 스승의 유지를 받드는 그 자리에서 금오가풍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후보단일화의 뜻이 모아

지지 않더라도 형제끼리

비방하거나

도 형제끼리

혈투는 일의 없어야겠다. 그런일은 속인들도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금오스님은 입적전 말씀과 월탄스님에게 문도들의 화합을 각별히 당부하셨다.

부처님게서도 여러 경전에서 일러 주셨다.

"친척이나 친구를 5가지로 경애해

야한다. 죄 짓는것을 보면 조용히 깨

우쳐주고 다급할때 구해주고, 개인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말고, 속이지

않고 좋은 물건을 나눠써라."

목어

법형제



◇18일 11번째 유회를 담은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는 종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평을 받으며 사실상 문을 닫았다.

성원미달·유회거듭 '실망'

사실상 막내린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

각종 현안 특위구성

종권수호 노력 '인정'

종단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는 초창기 반 곱어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벌이며 정책을 입안하는 열정을 보여 종단개혁의 견인차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회기를 거듭 할수록 종회는 성원미달과 유회를 거듭하며 종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안건을 다루며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석을 떠나는 의원스님들이 늘어나 유회가 거듭됐고 이에 참석조차 않는 스님도 많아 제적의원 81명의 과반수인 42명을 간신히 채워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2회와 13회 임시종회는 성원미달로 개최조차 못하는 부끄러운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거기다 종회 내부에서 '해산론'과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심각한 사안감을 겪어왔다.

사실상 마지막 종회인 134회 임시종회도 성원미달로 유회되고 말았다. 이로써 종회는 21번의 회기 중 11번

의 유회사태를 낚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질타까지 듣고 있다. 또 17건의 종법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12대로 물러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오점을 남겼다.

종단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부의 각종 행정을 견제하는 종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꼽히는 요인은 종회 의원들의 사명감 부족이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문종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루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사무처장이 3번 교체되고 1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은 가운데 9명이 보궐되는 등 구성원의 잦은 변동도 종회를 원만히 이끄는 데 장애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 종단 현안에 대한 종회차원의 대응을 하며 종권을 수호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총무원과의 합동 총무감사를 통해 사찰 재정 운용을 투명화하고 체계를 잡은 것도 큰 소득으로 꼽힌다.

임연태 기자

종회의장 설정스님 일문일답

"종회구성 개선책 필요"

-임기 2년의 종회의장직을 연임하며 4년간 중앙종회를 이끌어 온 소감은.

▲지난 4년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함에 따른 부끄러움도 큼니다. 종단발전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승가 개개인의 애증심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종회 내부의 분열을 막기위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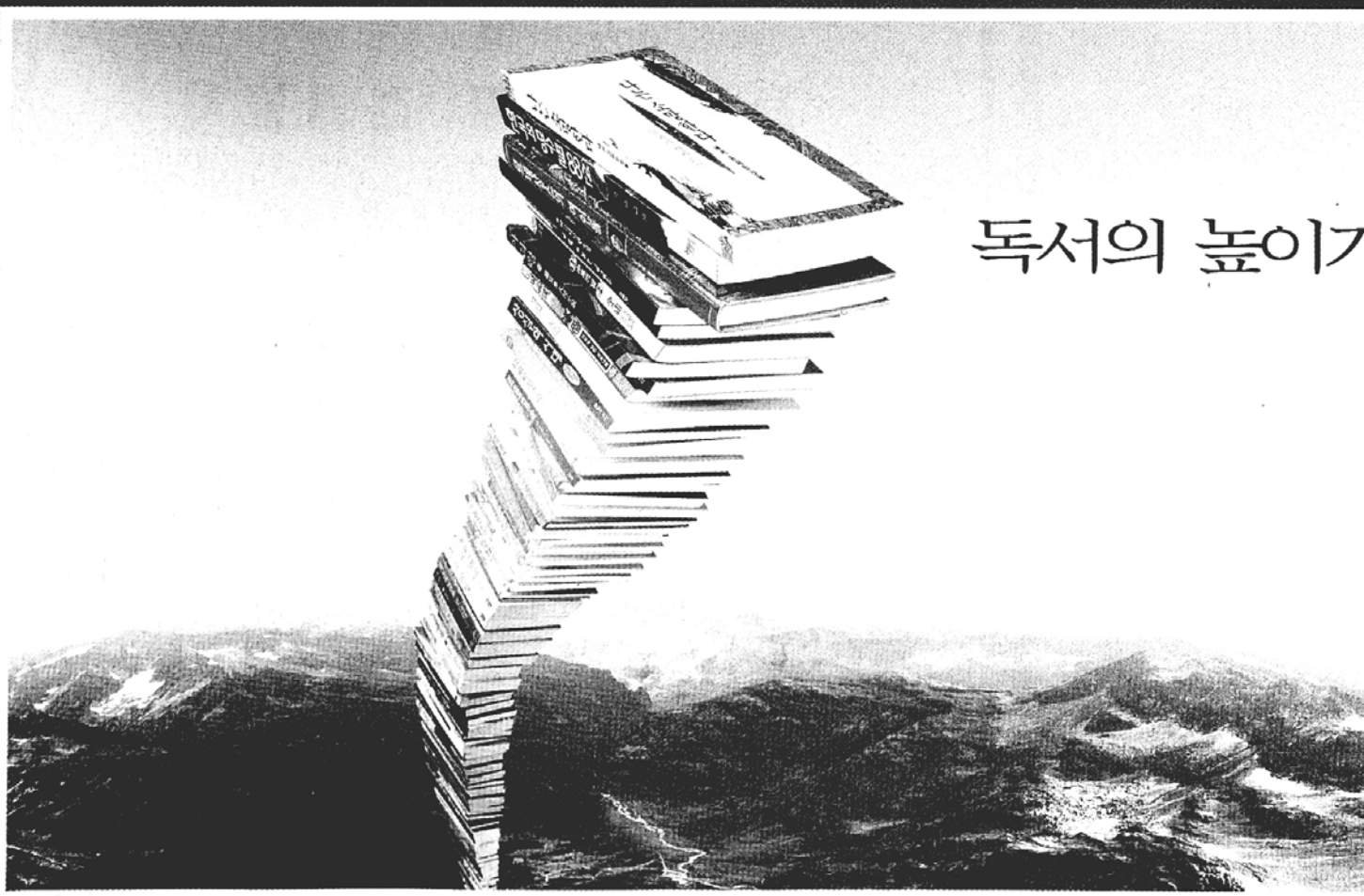
했으며 그런 와중에 좌절도 많았습니다. 11번의 유회라는 오명은 종도들에게 끝내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회의 거듭된 유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무엇보다 의원스님들의 사명감과 애증심이 중요합니다. 종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훌훌분하게 수행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독서의 높이가 삶의 높이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지혜가
바로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책을 읽으세요
높이 올라가야 멀리 바라볼 수 있듯
더 넓은 세상과
밝은 내일이 펼쳐집니다

보지 않은 책은 한 문지 종이에 불과합니다
책을 열어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